
사이람 SNA 연구 시리즈1

2014년 중학생 교우관계 분석 리포트 (요약본)

제 1 편

9개교 실증연구를 통한
따돌림이 발생하는 관계적 특징에 대한 발견

추천사

학생 집단 따돌림 해결책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

장덕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 사회발전연구소장

10년 넘게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나라.

1년 동안 청소년들이 300-400명씩 자살하는 나라.

이보다 더 슬픈 기록이 어디 있을까. 한국 청소년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 유독 자살 충동을 더 잘 느끼고 있기 때문일까? 정말 대한민국은 청소년들이 살기 힘든 나라일까? 무엇인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 동안 자살은 개인 병리현상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유독 두드러진 추이로 나타내면, 이것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한번쯤은 구조적 문제로 들여다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청소년들이 속한 사회의 구조적 문제이거나, 아니면 그 구조가 작동하는 시스템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정환경 문제, 학교에서의 문제 등이 폭넓게 거론된다. 물론 “경쟁 위주의 교육 환경”이 불러온 병폐라는 목소리도 빠지지 않는다. 하지만 이 모든 지적은 원론적 수준에 머물고 만다. 사회적 현상과 개인적 현상과의 인과 관계를 구조적으로 입증해 내기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학교 폭력”이나 “왕따”가 자살의 주요 원천으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이 문제 역시 아직은 개인 문제로 취급하는 경향이 강하다. 학교 폭력 관련 뉴스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격적 특성이나 가정환경 등을 위주로 사건을 묘사하고, 인성 프로그램 개설이나 상담교사 배치 등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려 든다. 사회구조적 관점이 구체적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기에, 개인적 문제로 회귀하여 해결책을 구하는 것이다.

일찍이 사회학은 “인간 소외” 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특히 ‘공동체로부터의 소외 문제’는 개인으로 하여금 절망에 이르게 하는 주된 요인으로 적시한 바 있다. 공동체로부터 끈 떨어진 개인은 처절할 정도로 존재의 연결 고리를 형성하려 든다. 절망은 폭력을 낳고, 폭력은 그 반대편에서 자살과 같은 사회 병리적 현상을 초래한다.

그런 측면에서 자살, 폭력, 왕따 문제는 개인의 문제라기 보다 사회성의 문제이다. 그 시발점으로서의 소외 문제, 즉 학교에서의 왕따 문제는, 그것이 이후 군 생활, 가정 생활, 사회 생활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폭력과 자살의 형태로 전이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연구보고서는 의미심장하다. 사회학에서 발전시킨 사회연결망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기법과 그것에 상응하는 컴퓨팅 방법론을 십분 활용하여, “왕따 문제”를 사회성 차원으로 파악해 들어 갔기 때문이다. 자살 원천으로서의 ‘왕따’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과학적 시도인 셈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인성 검사에서도, 선생님의 시야에서도 파악되지 못한 외톨이 학생이 평균 50명 중 한 명꼴로, 즉 한 학년에서 최소 두 세 명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대다수는 선생님과 학부모의 따뜻한 손길을 통해 다시 교우 관계망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청소년 문제를 접근하고 사회적으로 재조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 보고서를 매우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후속 연구가 기대되는 바이다.

2014년 중학생 교우관계 분석 리포트 주요 시사점

[분석 대상 및 방법]

9개 중학교 5,470명의 교우관계를 진단하여, 따돌림 위험 징후를 발견할 수 있었다.

- Moreno의 사회성 측정법을 **사회 연결망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으로 발전시켜, 교우관계를 진단함
- 학생들의 **정서적 관계**(놀이 공유 관계, 정서 공유 관계)와 **이성적 관계**(학습 협력 관계, 리더십 평판 관계)를 진단함
- 교우관계의 패턴 분석, 따돌림 위험군 분석, 학급별 교우관계 지표 분석을 진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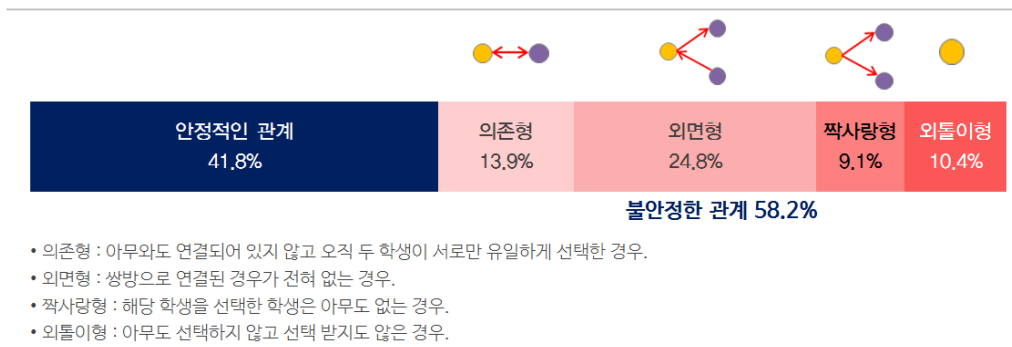
[주요 시사점]

1. 학교 폭력 예방은 **관계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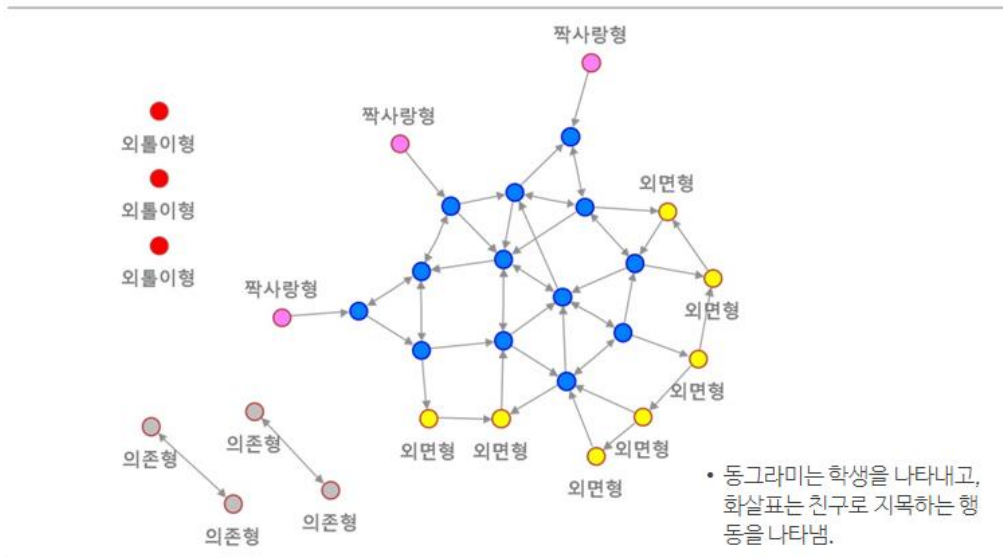
- 기존의 학교폭력 예방 정책은 학생 인성에 대한 관점으로만 접근해왔음
- 본 연구는 학교폭력의 근원이 되는 **소외**를 발생시키는 **교우관계의 구조**에 주목함
- 교우관계망이 취약하고, 관계로부터 소외된 학생이 학교 폭력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짐

2. 전체 학생 중 **10.4%**는 **외톨이형**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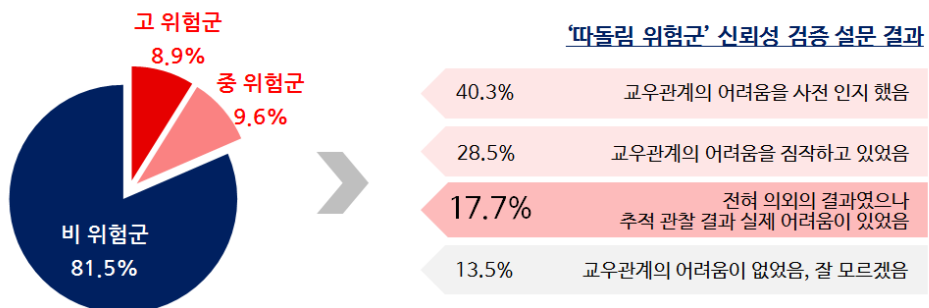
- 교우관계 패턴을 분석해, 4가지 불안정한 유형(① 의존형 ② 외면형 ③ 짝사랑형 ④ 외톨이형)의 현황을 파악함
- 그 결과, 안정적인 유형은 4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1개 학급이 30명의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그 중 3명은 외톨이형, 3명은 짝사랑형, 7명은 외면형, 4명은 의존형인 것으로 나타남



- 3. 교우 관계망이 취약하여 정서적 친밀감과 사회적인 지지를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따돌림 위험군' 이 18.5% 였다.



• '따돌림 위험군' 신뢰성 검증: 진단을 받은 모든 학교 중 3개 학교(따돌림 위험군 총 125명)가 따돌림 위험군 진단 결과에 대해 응답

- '따돌림 위험군' 중 86% 정도의 학생은 실제 교우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따돌림 위험군' 중 18% 정도의 학생은 교사 인지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4. 교우관계 진단으로 따돌림 위험 징후를 사전에 발견하고, 교우관계 패턴에 따른 교우관계 개선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요 약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이 연구는, 학교 폭력의 원인과 해결책을 개인의 인성적 측면이 아닌 학생들 사이의 관계적 측면에서 찾으려는 데서 출발한다.

현재 학교 폭력 예방 대책은 신고나 처벌의 강화라는 사후적이고 학생 개인 차원으로 접근하는 조치에 상당부분 치중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폭력이 발생하는 과정의 핵심에 ‘따돌림’이라는 관계 소외 현상에 있다고 본다. 따라서 학생들의 교우 관계 분석을 통해 따돌림 현상의 징후를 찾아내는 것이 진정한 예방적 접근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따돌림의 징후를 보이는 관계 패턴 및 위험군을 미리 발견할 수 있다면, 따돌림이 심화되어 학교 폭력이라는 범죄로 나타나기 전에 개선이 필요한 관계와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본 연구는 ‘다면적 관계망 진단’ 검사 방식으로 학생들의 교우관계를 다양한 측면에서 조사하고, 사회 연결망 분석 방법을 통하여 교우관계의 현 상태를 분석 및 진단했다.

2. 분석 대상 및 방법

다른 학생들과의 정서적 관계망과 이성적 관계망이 모두 취약한 학생들을 ‘따돌림 위험군’으로 정의하고, 따돌림 위험군으로 분류된 학생들의 실제 교우관계 상황과 대조함으로써 ‘따돌림 위험군’ 진단의 신뢰성을 검증해 보았다.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따돌림 조기 발견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과 함께, 따돌림 위험군 발생과 학급별 교우관계를 통해 발현되는 고유한 특징과의 연관성을 밝힘으로써 따돌림 개선을 위한 관계적인 접근 방법을 제안한다. 또한 사례 분석을 통해 학급 상황에 맞춘 교우관계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는 ‘다면적 관계망 진단’ 서비스에 참여한 학교 중, 9개 중학교 5,47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표 1〉 ‘다면적 관계망 진단 서비스’ 참여교 현황

학교급	학교 수	학급 수	총 학생 수(비율)
초등학교	3	13	348(4.4%)
중학교	10	81	5,929(74.8%)
고등학교	3	23	1,578(19.9%)
기타	2	3	72(0.9%)
총 합	18	120	7,927(100%)

〈표 2〉 연구대상 현황

학교별 현황

구분	학교 수(개)	학급 수(개)	학생 수(명)
여학교	2	20	618
남녀공학	7	146	4,852
총 합	9	166	5,470

학생 현황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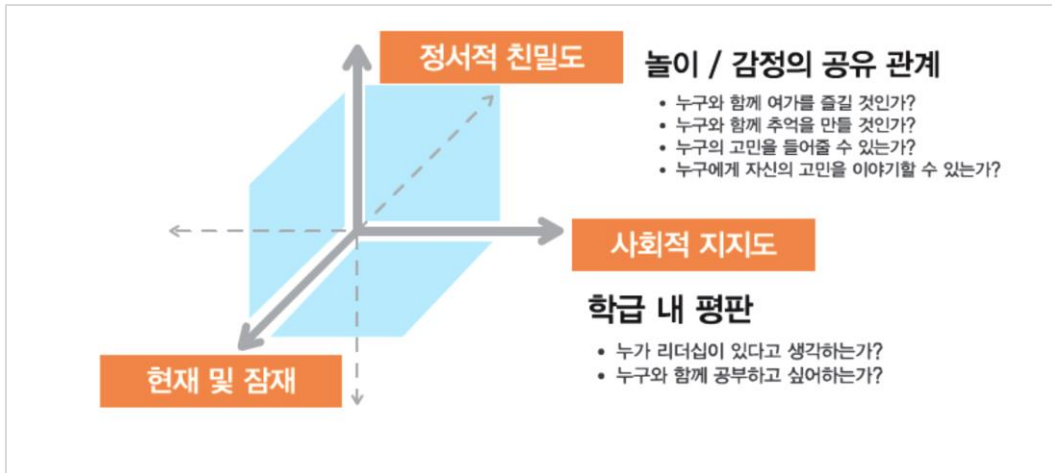
구분	학생 수 (비율)
1 학년	1,779 (32.5%)
2 학년	2,184 (39.9%)
3 학년	1,507 (27.6%)
남학생 수	2,558 (46.8%)
여학생 수	2,912 (53.2%)
총 합	5,470 (100%)

‘다면적 관계망 진단’ 검사는 학생들의 놀이 공유, 정서 공유, 학습 협력, 리더십 등 다양한 교우 관계를 측정할 수 있는 총 8개 문항의 설문을 시행한다. 측정하고자 하는 관계의 종류에 따라 ‘함께 영화 보러 가고 싶은 친구는 누구인가요?’와 같이 바로 대상을 떠올릴 수 있는 설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명 설문(Name Generator Question)형식으로 다른 학생들을 지명하는 응답을 하게 되어 있다.

연구 대상 중학교들의 조사 시기는 학기가 시작된 후 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된 시기인 4~5월이다.

Moreno의 사회성 측정법에 따라 서로 간의 친밀한 감정으로 연결되는 정서적 관계와 상대에 대한 주관적인 평판이나 인정이 기반이 되는 이성적 관계로 교우관계를 구분하였다. 학생들이 관계를 맺는 상황을 설정하여 정서적 관계는 놀이공유와 정서 공유의 2가지 관계로 측정하였고, 이성적 관계는 리더십 평판과 학습협력 관계로 측정하여 총 4가지의 교우관계를 수집 및 분석하였다. 그리고

정서적 관계망과 이성적 관계망이 모두 취약한 학생을 따돌림 위험군으로 정의하였다.



[그림 1] 교우관계 분석을 위한 다차원적 접근

3. 중학생 교우관계의 특징 및 관계 소외 유형

A. 평균 친구 수 5명, 70%는 일방적인 관계

중학생들은 평균적으로 5명의 학생과 친구 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서로 간에 친구라고 인정하는 쌍방 관계를 형성하는 학생들은 30% 정도로 나타나, 70%의 학생들은 일방향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 학급 내에서 배타적으로 단절된 그룹은 평균 4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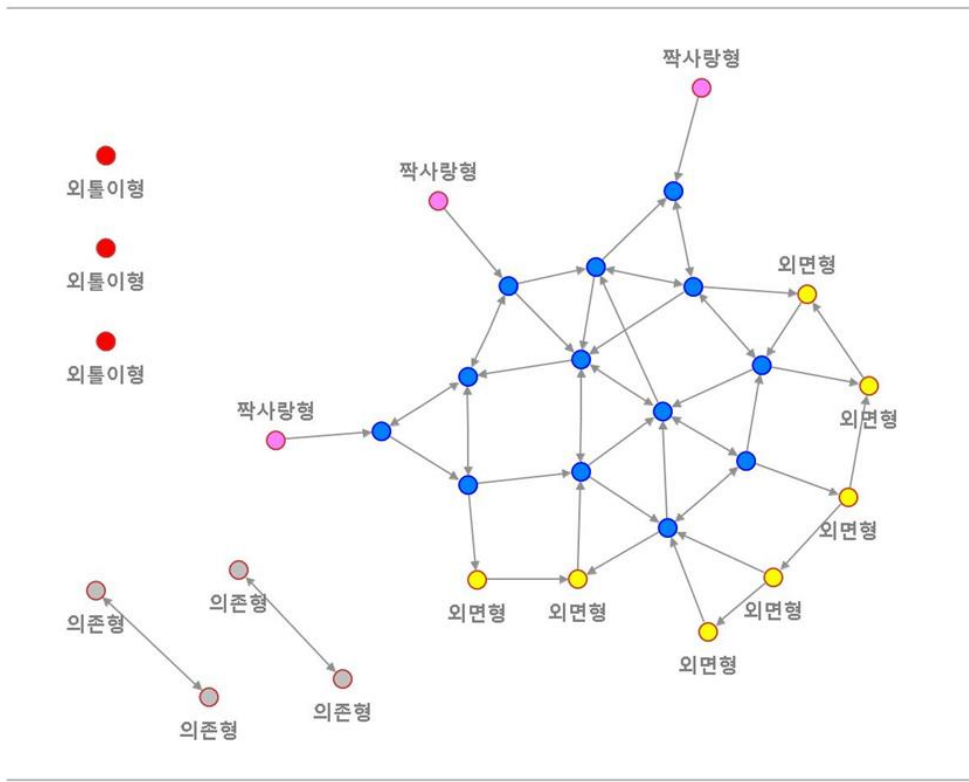
<표 3> 중학생 교우관계 특징

지표명	놀이 공유 관계	정서 공유 관계	평균
평균 지목 학생 수	6.48	4.04	5.26
상호관계 비중	33.6%	26.9%	30.3%
단절그룹 수	2.7	5.2	3.9

B. 학급 내 9%는 일방적인 관계만 맺은 짝사랑형, 10%는 고립된 외톨이형

전체 교우관계의 패턴을 분석해 보면,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학생은 41.8%에 불과했다. 나머지 58.2%의 학생은 불안정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불안정한 관계 유형으로는 각각 오직 한 사람하고만 관계를 형성한 의존형, 쌍방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외면형, 일방적인 관계로만 맺어진 짝사랑형, 아무와도 관계를 맺지 못한 외톨이형이 있다.

특히 그 중 관계 소외 위험성이 가장 큰 외톨이형은 10.4%로, 9개교 학생 중 570명이 이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교우관계 패턴 분석 결과 요약맵

<표 4> 중학생 교우관계 패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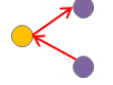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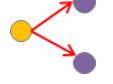

관계 패턴		놀이 공유 관계	정서 공유 관계
안정적인 관계		2,286 명 (41.8%)	1,043 명 (19.1%)
의존형		759 명 (13.9%)	711 명 (13.0%)
외면형		1,355 명 (24.8%)	1,730 명 (31.6%)
짝사랑형		500 명 (9.1%)	797 명 (14.6%)
외톨이형		570 명 (10.4%)	1,189 명 (21.7%)
총 합		5,470 명 (100%)	5,470 명 (100%)

C. 남학생은 외면형 비율 높고, 여학생은 의존형 비율 높아

교우관계의 특징은 성별, 학년, 학교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남녀를 비교했을 때,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안정적 관계유형 학생의 비율이 10% 정도 적었고, 외톨이형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외면형이나 짝사랑형과 같은 일방향적인 관계도 남학생이 조금씩 많았다.

〈표 5〉 남학생과 여학생의 교우관계 패턴

관계 패턴		놀이 공유 관계		정서 공유 관계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안정적인 관계		37.0%	46.0%	14.1%	23.4%
의존형		11.0%	16.4%	9.1%	16.4%
외면형		29.1%	20.9%	32.6%	30.7%
짝사랑형		10.8%	7.7%	16.5%	12.8%
외톨이형		12.1%	8.9%	27.6%	16.6%
총 합		100%	100%	100%	100%

학년별로는 1학년 보다 3학년의 관계가 더 폐쇄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 외톨이형은 2학년에 서 비율이 상승하여 3학년에서 비슷한 비율을 유지했고, 짝사랑형은 1, 2학년에 비슷한 비율을 유지하다 3학년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교와 남녀공학을 비교해 보면, 배타적으로 단절된 그룹의 수가 여학교는 평균 2.3개, 남녀 공학은 4.2개였다. 여학교보다 남녀공학의 교우관계가 더 분절되어 있고 외톨이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4. 따돌림 위험군의 진단 및 검증

A. 전체 학생의 8.9% 고위험군 나타나

이성적 관계와 정서적 관계를 모두 고려하여 교우관계로부터 사회적 지지와 정서적 친밀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들을 따돌림 위험군으로 진단하였다. 그 결과, 전체 학생의 8.9%가 고 위험군, 9.6%가 중 위험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B. 따돌림 위험군 진단 평균 86.4%의 신뢰도 보여

따돌림 위험군 진단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진단을 받았던 전체 학교 중 세 학교의 인성담당 교사에게 검증 설문을 실시했다. 그 결과, 3학교의 따돌림 위험군으로 진단 받은 학생들은 작게는 78%, 많게는 95%가 실제 교우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돌림 위험군 진단은 평균 86.4%의 신뢰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표 6〉 따돌림 위험군 진단 검증 결과 요약

교사 사전 인지 정보	추적 관찰 결과	A 중학교	B 중학교	C 중학교	평균
사전에 교우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던 학생이다	-	8명 (19.5%)	45명 (32.4%)	135명 (68.9%)	63명 (40.3%)
교우관계에 어려움이 있는지 약간의 짐작만 가지고 있던 학생이다	-	13명 (31.7%)	50명 (36%)	35명 (17.9%)	33명 (28.5%)
전혀 의외의 학생이다	교우관계가 매우 미진하였다.	1명 (2.4%)	15명 (10.8%)	12명 (6.1%)	9명 (6.5%)
	교우관계가 약간 미진하였다.	10명 (24.4%)	10명 (7.2%)	4명 (2%)	8명 (11.2%)
합계		32명 (78%)	120명 (86.3%)	186명 (94.9%)	113명 (86.4%)
전혀 의외였던 학생 중 - 교우관계가 다른 학생들보다 활발했다 - 교우관계가 다른 학생들과 비슷했다 - 잘 모르겠다		9명 (22%)	19명 (13.7%)	10명 (5.1%)	13명 (13.6%)
따돌림 위험군 총합		41명 (100%)	139명 (100%)	196명 (100%)	125명 (100%)

보다 중요한 것은 따돌림 위험군 진단을 받은 학생들 중 평균 18%의 학생들이 실제로 교우관계가 불안정 했음에도 교사가 사전에 전혀 인지하지 못한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 점이다. 이들은 또한 인성심리 검사 결과에서는 대부분 보통의 진단 결과를 받아 이상징후를 알아차릴 수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7〉 따돌림 위험군에 대한 인성심리검사 결과 비교

항목	B 중학교
인성심리검사에서는 긍정적인 진단 결과가 나왔었다	21 명 (47.7%)
인성심리검사에서는 보통의 진단 결과가 나왔었다	11 명 (25.0%)
인성심리검사에서도 부정적인 진단 결과가 나왔었다	9 명 (20.5%)
인성심리검사를 하지 않았거나 잘 모르겠다	3 명 (6.8%)
따돌림 위험군으로 진단한 학생 중 전혀 의외였던 학생	44 명 (100%)

교우관계 분석이 교사가 인지하기 어려운 문제 상황을 드러내거나 문제 발생 가능성을 미리 고지하여 예방 조치를 도울 수 있음을 시사한다.

5. 따돌림 위험군의 특징

A. 고 위험군,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2배 많이 나타나

따돌림 위험군으로 분류된 학생들은, 학년별 차이보다는 남녀 간의 차이가 좀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특히 고 위험군은 남학생 중에서 12%, 여학생 중에서는 6%로 두 배에 가까운 차이가 나타나,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따돌림 위험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교별로는 남녀공학이 여학교에 비해 따돌림 위험군의 비중이 높았다.

한편, 학급 내 따돌림 위험군 비율은 학급 교우관계로부터 발현되는 집단적인 특성들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급 내 단절그룹 개수, 평균 지목 학생 수, 상호관계 비율, 제1그룹의 학생 수와 같은 학급 교우관계 특성들은 따돌림 위험군 비율과 상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돌림 위험을 낮추고자 하는 노력이 반 전체의 교우관계 개선과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었다.

6. 사례를 통한 교우관계 개선 방향 모색

같은 따돌림 고 위험군 진단을 받은 학생이라도, 각 학생의 관계 패턴과 상태가 다르고 학생이 속한 학급 전체의 교우관계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학생과 학급의 상황에 따른 개선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두 학급 사례 비교를 통해 구체적인 학급 교우관계 상황과 그 안에서 따돌림 위험이 있는 학생의 상황을 분석하고, 상황에 따른 교우관계 개선 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학급 전체 교우관계가 활성화 되어있고, 단절 그룹 개수도 적어서 결속력이 높은 학급에 속한 따돌림 고 위험군 학생의 경우, 구조적인 요인 보다는 국소적인 관계 위상에서 문제를 발견했다. 호감을 보이는 친구가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다양한 교우관계에서 조금이라도 호감을 보이는 친구와 가까이 지내도록 지도할 수 있다.

반면, 학급 전체 교우관계가 원활하지 않고 많은 그룹으로 단절된 상황 속에 있는 고 위험군 학생의 경우 국소적인 관계 위상에서 개선점을 찾기 어려웠다. 관계 자체를 많이 맺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는 학급 전체를 대상으로 교우관계 개선을 위한 지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7. 교우관계 분석 결과의 시사점

9개교 중학생들의 교우관계 분석을 통해 이 연구는 학교폭력 예방 차원에서 두 가지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는, 교우관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진단을 통해 학교 폭력이 발생하기 전에 따돌림 위험 징후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학생과 학급의 교우관계 상황을 파악하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교우관계 개선의 적절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우관계분석은 실제 학생들의 관계를 분석하여 현재 교우 관계의 어려움이 있거나 학교 폭력에 노출되기 쉬운 관계약자들을 파악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따라서 교우관계분석을 통하여 학교 및 교사들은 학생들의 사회성 지도는 물론, 학교폭력과 따돌림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학급 관리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후 기

국내, 아니 전세계적으로도 유래 없이 시도된 교우관계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은 학교폭력과 따돌림으로 인한 안타까운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를 하고 싶었던 본 연구진의 의도를 공감해주고 기꺼이 참여해주었던 학교와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많은 학교를 찾아갔다. 학교에서 학교 폭력문제와 고군분투하며 애쓰는 교사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현실적인 고충과 간절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의견들을 통해, 학급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관계”에 기반해 있고, “관계”에 대해 알고 접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현장에서 들려준 교사들의 소중한 의견들을 이 자리에 담는 것으로 후기에 갈음하고자 한다.

-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발견하고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아이들의 관계는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반 학생들의 관계망을 더 잘 알고 싶다면, 본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특히 아이 하나 하나의 관계와 반 전체 관계를 볼 수 있으며, 담임선생님이 아이에 맞는 매칭 친구 추천까지 도움이 됩니다.
- 집단 내에서 대인관계 유형을 파악하는 유용한 검사로, 학기초 담임선생님들의 학생 파악에 유용합니다. 담임선생님은 학급 지도에도 활용하시어 만족도가 높으시고, 상담교사도 소외 학생 파악에 담임교사에게 의존하지 않고 주도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 교우관계검사를 2개월에 한번씩 진행하고 있지만 체계적이거나 과학적인 데이터가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검사는 내재된 문제들까지 볼 수 있었으며, 특히 사회적 지지와 정서친밀도를 함께 볼 수 있어 학생들 지도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를 통해 학생들의 교우관계를 확인해 본다면 따돌림을 예방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주관적 자기보고식 심리검사와 교실, 학교 안에서 바라보는 다면적 타인평가의 차이가 학생들을 이해하는데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는 관계라 사료되어 꼭 전교생을 대상으로 소외된 학생들을 찾아 그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담임 및 학급경영, 나아가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를 만드는데 크게 이 검사가 도움이 된다고 분석되어 적극 권장합니다.

본 연구에 기꺼이 참여해준 많은 학교와 교사, 그리고 학생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그리고 부디 본 연구 결과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

참고 문헌

- 교육부. (2013). 『2013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 교육부. (2013). 『현장 중심 학교 폭력 대책』.
- 교육부. (2014). 『2014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 김달효. (2010). 사회적 측정(sociometry)을 활용한 학생의 사회적 개선 효과 검증. 『수산해양교육연구』, 22(4).
- 김미란, 최정미. (2004). 초·중학교 여학생의 친구관계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한국생활과학회지』, 제 13권 3호.
- 류준혁. (2013). 학교 폭력 방재 연구. 『한국방재학회논문집』, 제13권 6호. P 249~256.
- 문혜신. (2001). 또래의 괴롭힘이 청소년기 사회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배정미. (2008). 중학생의 학교적응 관련요인의 인과적 구조분석. 『대한간호학회지』, 제38권 제3호.
- 송 순. (2000). 아동의 또래지위지각 관련변인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0권 2호.
- 엄명용, 송민경. (2011). 학교 내 청소년들의 권력관계 유형과 학교폭력 참여 역할 유형. 『한국사회복지학』, 63(1). P 241-266.
- 이상균. (1999). 중학생 또래따돌림('왕따')의 예측요인.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학술논문.
- 이종근. (2013). 학교폭력의 원인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법적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동아법학』, 61. p 1~27.
- 이주리. (1995). 유아 및 아동의 가정환경 및 또래환경의 역량지각. 서울대학교 소비자아동학과 박사학위논문.
- 이춘재, 박금주. (2000).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 실태와 특성』. 서울: 집문당.
- 정옥분(2002). 『아동발달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진혜경, 최윤정, 김종원. (2001). 학령기 집단따돌림 피해 및 가해아동의 성격성향에 관한 연구. 『소아·청소년정신의학』, 제12권 제1호.
- 통계청. (2013). 『2013년 사회조사 결과』. 국가통계포털.
- 한국교육개발원. (2014). 『교육통계연보』.
- Coie, J. D. & Kupersmidt, J. B. (1983). A behavioral analysis of emerging social status in boys' groups. *Child Development* 54, 1400-1416.
- Coie, J. D., Dodge, K. A. and Kupersmidt, J. B. (1991). Peer group behavior and social status. In Steven R. Asher, John D. Coie. (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 (pp. 17-59) Cambridge State University.
- Coie, J. D., Lochman, J. D., Terry, R., Hyman, C. (1992). Predicting early adolescent disorder from childhood aggression and peer rejec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0(5), 783-792.

- Crick, N. R., & Bigbee, M. A. (1998). Relational and overt forms of peer victimization: A multiinformant approach.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6*(2), 337-347.
- Dishion, T. J., Andrews, D. W., and Crosby, L. (1995). Antisocial boys and their friends in early adolescence: relationship characteristics, quality, and interactional process. *Child Development 66*, 139-151.
- East, P. L. (1991). Peer status groups. In R. M. Learner, A. C. Petersen, & J. Brooks-Gunn (eds.), *Encyclopedia of adolescence (Vol.2)*. New York: Garland.
- Gronlund, N. E. (1959). *Sociometry in the classroom*. New York: Harper.
- Jo, E. J., & Lee, H. K. (2007). The effects of school maladjustment on risk behavior, family, and school factor by Korean adolescents' panel data.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4*(4), 59-80.
- Moon, H. O. (1987). Self-concept and school achievement of maladaptation stud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shin University, Seoul.
- Moreno, J. L. (1934). *A new approach to the problem of human interrelations*. Washington, DC: Nervous and Mental Disease Publishing.
- Olweus, D. (1993). Victimization by peers : antecedents and long-term outcomes. In KH Rubin & JB Asendorf(Eds). *Social withdrawal, inhibition, shyness in childhood*. Hillsdale NJ : Erlbaum.
- Salmivalli, C. (2001). Group view on victimization: empirical findings and their implications. In J. Juvonen & S. Graham (Eds.), *Peer Harassment in School: The Plight of the Vulnerable and Victimized* (pp. 398-419). New York, NY: Guilford Press.
- Taylor, R. G. (1964). Personality traits and discrepant achievement a Review.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 Yoon, E. J., & Kim, H. S. (2005). The relationship among types of life-style, mental health and school-related adjustments of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7*, 105-120.
- Wasserman, S. & Faust, K. (1994). *Social Network Analysis*. Cambridge University Press.

사이람 SNA 연구 시리즈 1

2014년 중학생 교우관계 분석 리포트

발행인 김 기 훈

발행일 2015년 2월

발행처 (주)사이람

(137-943)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로 10길 5

태석빌딩 11층

전화 (02)886-6077 팩스 (02)886-6104
